

お名前 () さん

만물이 소생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변
가로수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겨울 제설 작업 때 고속도로에
뿌려진 염화칼슘이 그 원인입니다.

한창 새싹이 움트는 시기지만 고속도로변 소나무는 잎이 누렇게
말라가고 있습니다. 지난 겨울 고속도로에 뿌린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
때문입니다.